

연변 조선족아동의 미디어환경과 이중언어발달

박 혜 원*(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전공 교수)

원 영 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 귀 옥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부 교수)

최근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연변 조선족사회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였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이들 조선족사회의 미디어환경에도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조선족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조선족 자치주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변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환경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환경 중 미디어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연변조선족 아동의 미디어사용실태, 아동의 미디어이용시간과 문제행동 및 미디어중독간의 관계, 미디어종류에 따른 이중언어사용비율, 아동의 제2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중국 조선족 자치주 주도인 연길시 조선족 소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생 246명(남 116명, 여 113명)과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학생의 경우 수업시간 40분 동안 각 반에서 현직 교사 1명과 한국 연구원 1명이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질문을 받으면서 실시하였으며, 부모용 설문지는 당일 학생을 통해 배부하여 1주일 내에 회수하였다. 학생용 및 부모용 설문지의 회수율은 각각 100%와 97%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본국에서 코딩작업 후 통계분석을 하였다.

조사결과 가정의 미디어보유율은 TV, 휴대폰, 전화, 라디오/전축, VCR, 카세트녹음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정에서의 컴퓨터보유율 및 인터넷사용비율은 각각 전체의 49.4%, 24.5%로 집계되었다. 미디어종류별 아동의 하루 평균사용시간은 TV, VCR, 컴퓨터게임, 음악듣기, 게임을 제외한 컴퓨터사용의 순서대로 보고되었다. 평일에 TV를 많이 보는 아동의 경우 주의집중 결여($r = .18$), 공격성($r = .18$) 등의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VCR 및 컴퓨터 이용시간과 미디어중독정도간에도 유의미한 상관($r = .19-.35$)이 발견되었다. 미디어 종류별 아동의 조선어/한어의 사용비율을 보면, 신문/잡지, 책, 라디오의 경우 조선어의 비중이 높았고, TV에서는 조선어와 한어의 비중이 비슷하며, 컴퓨터의 경우에는 한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미디어 사용언어, 부모의 중국어수준, 부모의 애정 등은 아동의 중국어능력을 예측해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미디어환경은 미시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면서도 중간체계와 외체계의 사이에서 거의 모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체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환경은 특히 이중언어발달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환경이면서도 중요한 언어적 환경이 된다. 본 연구는 연변조선족아동을 대상으로 TV 및 컴퓨터와 관련한 문제행동 및 미디어중독과 같은 폐해를 확인한 최초의 연구로서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발달에서 미디어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 연구로서도 그 의의가 크다.